

사람생각!
소통의 공간!
행동하는 지성!

할말은 한다 2호

2022년 3월 21일 월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노재옥 전화/920-5159

3,700을 넘어 더 강한 조직으로! 22년 사업계획 확정! 12대 집행부 정기대의원대회 보고



온라인(줌)회의를 통해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을 위한 대의원대회 열려.

지난 16일(수) 노동조합의 한 해 사업계획을 확정 짓기 위한 정기대의원대회가(이하 대대) 보건의료노조 4층 열린 책방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회의 시작 전, 보건의료노조 방기원 교육위원장으로부터 “대의원의 역할과 마음가짐”이란 주제로 교육을 들었다. 정기대대는 교육, 보고사항 보고, 안건 논의를 거쳐 폐회했다. 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작년은 임금교섭의 해임에도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사람에게 투자하라], [투쟁없이 쟁취했다.]는 구호를 외치며 12일간의 파업을 진행했다. 올해는 단체협약이 있는 해이다. 단합이기 때문에 더욱 가열찬 투쟁이 필요하다. 오늘

사업계획을 확정지으면 현장에 돌아가 요구안을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교섭을 준비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Next Round 2. 상호존중 조직문화 정착, 희망과 미래가 있는 일터

3,700 조합원의 수많은 꿈, 노동조합이 만들어 간다!

12대 집행부는 3대 핵심사업으로 ▲상호존중 문화 정착 ▲노동이 존중받는 안전한 병원 만들기 ▲조직 및 교육 강화를 내세웠다. 더욱이 상호존중 문화 정착과 관련해서는 의료원 및 각 병원 노사 공동선언을 선포하며 매달 다양한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부서별 사업계획으로 코로나19 시국에 맞춰 온라인 기행 및 교육 등의 비대면 사업을 확정지었고 2022년 새롭게 떠오르는 주제인 기후위기 대응 사업으로 제로웨이스트 및 노사 공동선언 사업을 확정했다.

기타논의로 ▲인력부족 ▲간호사에게 이관된 인턴업무 처리 ▲주당 52시간 근무 ▲코로나로 인한 현장문제 ▲간호 교대제 시범사업 등을 공유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의원대회 보고사항 및 논의 안건 결과

■ 보고사항

1. 활동보고 2. 민주노총 모범조합원상 수상 보고 3. 2021년 회계감사 및 총결산 보고
4. 2022년 보건의료노조 및 서울지역본부 사업계획 보고 5. 보건의료노조 규정 개정(안) 보고

■ 논의안건

1. [2021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예비비 사용 시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대의원대회를 통해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해야 하나 무도무임 지불을 집행위와 대의원대회 후로 미룰 수 없어 불가피하게 선사용 후 보고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이의 없이 승인함.
2. [2022년 고대의료원지부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총괄사업계획 및 각 구 부서별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이의 없이 승인함.
3. [2022년 고대의료원지부 예·결산(안) 승인의 건] 조합비 및 투쟁기금 예·결산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이의 없이 승인함.

직원을 존중하는 마음.
노사가 앞장섭니다.

직원존중문화 노사공동 선언

고대의료원에 직원존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사의 노력은 계속된다!

우리지부는 폭언 반말 등의 상호 배려하지 않는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노사협의회를 진행했으며 지난 1월 노사공동 선언식을 진행했다.

각 병원에서는 상호존중 문화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나아가 노동조합과 함께 공동선언식을 진행하고 캠페인을 시작한 가운데 안산병원에서는 2월 25일 상호존중 실천 다짐 선언식을, 안암병원은 3월 8일 노사 공동선언 및 캠페인을 진행했다.

상호존중을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안산병원 상호존중 실천 다짐 선언식은 김운영 병원장, 구자설 진료협력센터장, 고대의료원 노동조합 노재옥 지부장 등과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개회사 ▲격려사 ▲활동 경과보고 ▲선언식 ▲사진 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선언식 마지막에는 직종별 직원 대표들과 노사가 함께 상호존중 선언문과 행동 5계명을 낭독하며 상호존중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선언식 이후 81병동, 83병동, 영상의학과, 이비인후과, 진료협력팀을 방문하여 상호존중 글귀가 쓰인 스티커를 마스크에 직접 붙여주며 힘든 업무 중에도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하라고 말했다.

더욱이 매월 11일(3월~7월)을 '상호존중의 날'로 정하고 병원 내 상호존중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각종 캠페인 및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암병원 노사 공동선언은 윤을식 병원장, 노재옥 지부장, 정태경 경영관리실장, 추영수 간호부장이 참석했으며 전공의 대표도 함께했다. 선포식에서는 교직원 간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상호존중의 호칭 사용 ▲비속어와 은어 지양 ▲존대어와 고운 말 사용 ▲전화통화 및 대화 시 경청과 공감의 예의 지키기 ▲먼저 웃으며 인사하기 ▲배려하고 배려받는 화합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자고 다짐했다.

우리지부는 노사공동 선언에 이어 직장 내 폭언과 반말 등의 문화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직원식당 앞 신고함을 통해 접수된 사례들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상호존중 실천 선언문

고대 안암병원 교직원은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서로 올바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교직원 간 통칭 호칭 "선생님")
둘, 비속어와 은어를 지양하고, 서로 존중하는 존댓말과 고운말 사용을 상용화합니다.
셋, 서로 간 대화 시 (즉시 전화 통화 시) 경청과 공감의 더욱 예의를 지킴으로써 노력합니다.
넷, 우리는 먼저 웃으며 인사하며, 서로 배려하고 배려 받는 화합의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합니다.

우리는 위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 행복한 병원 문화를 조성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2년 3월 8일
고대안암병원 교직원협의회

